

한옥진흥정책 10년의 성과와 방향

신치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

한옥진흥정책의 배경

최근 전국을 다니다 보면 단순히 눈으로 보는 한옥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한옥이 많이 건축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한옥들에 대한 정보는 입에서 입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면서 한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급증하였다. 서울 북촌과 전주 한옥마을은 어느 사이 국민들에게 친숙한 장소로 기억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마을에 대한 관심도 이어져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특히 최근 한옥마을 부지 분양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나타났다. 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의 한옥마을은 평균 경쟁률 78:1을, 세종특별자치시의 한옥마을에서는 최고 경쟁률이 299:1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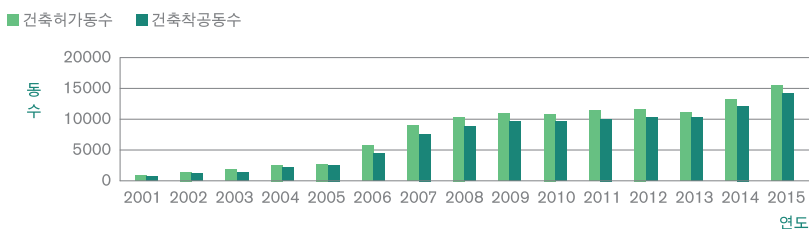
한옥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성공적인 경제발전 이후 지나친 서구화에 대한 반감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식·한복·한국음악 등 전통문화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 정체성의 기반으로서 전통문화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옥 관련 정책의 방향은 '보존'에서 '활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한옥과 한옥의 요소를 활용한 건축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인하여 과밀화된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도시민들의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인구사회학적으로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은퇴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커지기 시작한다. 이들 고령인구는 자녀를 분가시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서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주택유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아파트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이 장기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주거문화의 패러다임이 아파트 중심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거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5년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이 119만 3,691건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하여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전년대비 아파트는 14.0%, 연립 다세대는 33.5%, 단독 다가구는 25.8%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최근 건축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미약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목조 건축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목조건축의 용도는 대부분이 주거용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한옥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조건축산업이 성장하는 상황은 목조에 한 부분인 한옥건축산업 성장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 및 건축물 착공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5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9.4만 건으로 '06년 이후 최대” 2016.1.11.

목구조 건축물 신축, 증축/개축/이전/대수선, 용도변경 허가 동수 및 연면적 통계

연도별	신축 동수	신축 연면적	증축/개축/이전/ 대수선 동수	증축/개축/이전/대수선 연면적	용도변경 동수	용도변경 연면적
2011	8,593	845,412	2,317	92,418	665	50,522
2012	8,855	746,819	2,313	76,346	686	46,948
2013	8,921	864,230	2,027	81,240	762	49,540
2014	10,067	988,037	2,249	80,469	747	131,784
2015	11,970	1,176,617	2,711	88,213	714	48,719

자료: 국가지표체계, 건축허가 및 착공현황(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24)

한옥진흥정책의 주요 성과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

중앙정부의 한옥진흥정책의 시발점은 2007년 마련된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으로 볼 수 있다. 10여 개의 중앙부처가 협력하여 세계문화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를 개척하고자 하는 목표로 한글·한식·한복·한옥·한지·한국음악 등 6개의 고유문화를 생활화·산업화·세계화하여 세계적 문화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2011년까지 추진하였다. 한옥 분야에서는 ①전통한옥 원형의 보전 ②한옥건축 국내 기반 구축 ③한옥건축의 세계화 추진이라는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각각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전통한옥 원형의 보전을 위하여 보전·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한옥건축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그리고 공공시설의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옥의 관광 자원화와 한옥식 정원모델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의 마무리 시점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산림청 등의 유관기관이 ‘국격 향상을 위한 신(新) 한옥플랜’(2010~2014년)을 수립하였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 한옥 분야

전통한옥 원형의 보전	한옥건축 국내기반 구축	한옥건축의 세계화 추진
전통한옥건축의 보전·관리 및 활용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한옥의 관광 자원화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
		
		

© 퍼블릭



글마루 한옥 어린이도서관

다. 이에 따라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목표로 한옥을 보급 및 확산하고 체계적으로 보전 및 활용하여 국가품격을 제고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세부사업들도 마련하였다. 국가한옥센터 역시 이때 만들어져서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하여 건축 도시공간연구소가 지정을 받게 되었다.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옥 공간 활성화 사업'(2009~2010년)에 총 8억 원을 지원하여 구로구 글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 여수 시립 현암도서관, 안산 관산도서관 등의 공공건축 분야에서 한옥을 건립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개수·보수 등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발굴 및 확산사업'을 마련하여 한국적 생활문화공간과 콘텐츠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통문화와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국적 실내 공간 명품모델'을 개발하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한국적 실내공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쉽게도 시범사업의 성격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옥 관련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하는 우수 한옥체험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한옥스테이' 사업과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고급 숙박시설인 '명품고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체험한옥과 한옥마을을 소개하는 사이트(<http://hanok.visitkorea.or.kr/kor/hanok/index.do#>)를 운영한다.



안산 관산도서관 내 한옥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용도 시설의 한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 한옥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35곳의 주민센터, 도서관·박물관, 숙박·체험시설 등의 공공용도 한옥 건립과 마을단위 계획 수립에 5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숙박·체험시설이 주를 이루었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를 지양하고 다양한 용도의 공공용도 시설에 지원을 하였다. 한옥으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 사례로, 방문자와 운영관리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다.

또한 한옥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한옥건축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옥전문인력 양성사업’(2011~2014년)을 진행하여 4년간 한옥설계 전문인력 600여 명,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650여 명을 배출하였으나 2015년부터 사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면서 중지된 상태이다. 반면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 캠프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학 정규 교육과정에 거의 편입되지 않은 한옥설계 교육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전국의 많은 건축 관련 전공학생들이 한옥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생활에 적합하도록 한옥의 기술을 혁신하고 건축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한옥기술개발 R&D 연구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사업에서 도출한 결과들은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데, 현재 2단계 실증 구축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3단계 R&D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자체 한옥건축지원사업 현황

연도	예산 (백만 원)	지원내역		지원금(백만 원)
		사·도 기관	용도	
계	5,330	35곳		
2008	250	전남 영암군	한국음식문화센터 조성	150
		충남 공주시	구들장체험 숙박촌 조성	100
2009	500	경기 이천시	도자예술촌 한옥 건축 체험공간 조성	100
		충남 부여군	한옥생활체험관 건립	100
		전남 장흥군	원목생활가구단지 조성(한옥숙박관)	100
		전남 영암군	한옥표본집 제작	100
		서울시	한옥문화관 조성	100
2010	500	서울 구로구	한옥 어린이도서관 조성	300
		전북 전주시	전통한옥 체험 홍보교육장 건립	200
2011	500	서울 은평구	은평박물관 건립(한식정자 설치)	200
		광주 남구	전통한옥 기능성 체험관 건립	170
		강원 강릉시	전통차 체험관 건립	130
2012	900	서울 종로구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건립	200
		경기 김포시	운양동 주민센터 신축	150
		경남 산청군	산청 약선음식 체험관 건립	200
		전남 담양군	창평면사무소 한옥청사 건립	200
		경기 이천시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한옥건립	150
2013	800	경기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	200
		충남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200
		전북 고창군	고창 한옥체험마을 조성	200
		서울 성북구	어린이집 건립	170
		서울 성북구	한옥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30(용역)
2014	850	경기 수원시	장안동 관광안내소 및 문화시설 조성	200
		서울 노원구	상계9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200
		전남 강진군	달빛 한옥마을회관 조성	150
		충북 괴산군	전통한옥체험관 조성	150
		서울 종로구	청운문학도서관 건립	120
		경북 경주시	전통한옥 전원마을조성 기본계획 용역	30(용역)
2015	730	서울 노원구	국공립 한옥어린이집 건립	100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한옥문화시설 건립	130
		충남 금산군	한옥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조성	100
		전남 영암군	한옥체험관 조성사업	200
		전남 강진군	다산 한옥관 조성사업	200
2016	300	강원 태백시	한옥 경로당 신축사업	150
		경남 함안군	무릉마을 예절교육관 건립	150



영암군 한국음식문화센터(2008년)



공주시 한옥생활체험관(2009년)



강릉 전통차 체험관(2011년)

이 외에도 2011년부터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사진, 계획(아이디어), 준공(건축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준공 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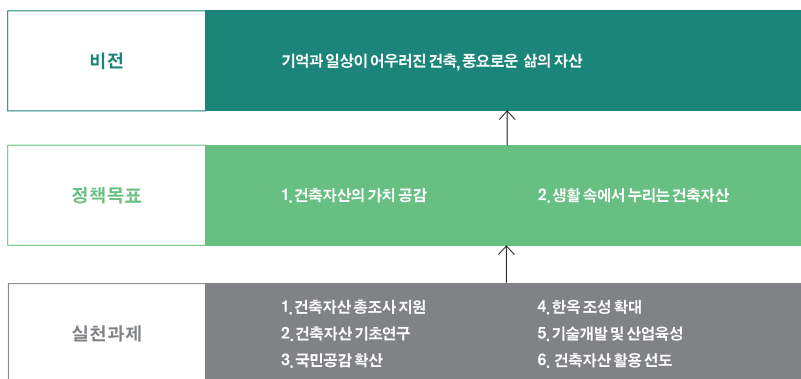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도적으로는 2015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국토의 품격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자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정책과 사업시행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사업 준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창출하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본법의 시행이 지자체의 건축문화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법률에 의거하여 한옥 고유의 건축 특징을 반영하고 정체성을 높이며, 지역별·경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성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인 ‘한옥건축기준’을 공시하였다. 전통건축양식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되 현대한옥의 다양한 발전양상을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 조성되는 한옥마을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한 건축자산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 현재 한옥 관련 조례는 63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였으며, 크게 한옥보전·진흥 지원조례와 한옥체험시설 및 민박시설 관리 운영 지원조례로 나뉘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행정구역 내의 한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적 특성으로는 전라남도가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가장 많은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27개 지자체) 다음으로 경상북도(7개 지자체) 경상남도(5개 지자체) 충청북도(4개 지자체)의 순으로 나타난다.

제1차 건축자산진흥 기본계획



한옥 및 한옥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별도로, 서울특별시는 국가한옥센터와 함께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거주자와 관련 전문가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우수한 한옥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 우수 한옥 한옥인 인증제’(2016년)를 시행하였다. 2001년 이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한 서울의 한옥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된 서울 우수 한옥에 참여한 관련 인물과 업체를 ‘서울 한옥인’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시상과 함께 한옥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러한 중앙·지방정부의 한옥 관련 정책과 사업으로 한옥 관련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옥진흥정책이 시작된 2007년부터 2010년 동안 한옥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한옥은 총 6,133채로 매년 1,533채씩 건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옥건축 시장의 규모는 작지만, 경제상황과 기타 외부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용도별 한옥의 특성은 근린생활시설이 43%, 주택이 36% 정도로 나타난다. 아울러 펜션(한옥숙박체험), 카페, 음식점 등으로 한옥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한옥 활용을 위한 사업들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의 효과로 전국에 한옥 공공건축물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2015년 현재 127곳 414동의 한옥 공공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규모가 1개동 단독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체험관, 전시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7~2010년 한옥 인·허가 수



자료: 이강민 외, "2007~2010년 한옥 인허가 현황 및 동향 분석", 한옥정책브리프 제22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한옥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한옥 통계는 현재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집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국가한옥센터가 한옥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서울·대구·전주·광주 등 주요 도시의 한옥전수 조사를 벌였고,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2018년까지 한옥전수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국가한옥센터의 「한옥통계 백서」에 따르면 2016년 전국 한옥 수의 추정치는 43만 6,000여 동으로 2014년의 39만 여 동보다 4만 6,000여 동(약 1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신축 한옥의 수와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확정되는 한옥의 수가 합해져서 나타난 수치이다.

한옥진흥정책의 방향

10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한옥진흥정책이 마련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한옥 관련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관련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한옥사업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신축 한옥의 수가 증가하였고 기존 한옥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서울·대구와 같은 대도시 내에서 멸실 우려의 대상이던 한옥과 한옥마을은 도심지 내에 새로운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는 대상으로 변화하였고, 전남의 행복마을은 도시민을 전남으로 유입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옥을 진흥하겠다는 기술 분야에서의 노력 결과 현대 생활에 적합하며 기존 한옥대비 저렴한 한옥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 한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결과와 함께 한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당부분 제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지난 10년 동안이 ‘관심 밖 주거유형’이던 한옥을 관심 영역으로 되돌리는 과정이었다면 이후의 한옥진흥정책은 기존과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우선 정부 주도의 한옥 관련 정책은 현재 국토교통부 위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다른 유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옥의 한국적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한옥건축 양식으로의 외연을 확장하거나 농산어촌에 산재해 있는 한옥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수가 이용하는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과 한옥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한옥 보급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까지는 대부분 개별 신축한옥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장기적으로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과 한옥 유지·관리를 위한 거주자 교육 등으로의 방향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아울러 다양한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장경간 다층의 한옥기술과 내진·면진과 같은 현대건축에서 요구되는 건축기준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한옥기술 R&D사업을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한옥진흥의 기반이 되는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수요자 계층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전통한옥부터 신한옥, 한옥건축 양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한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통에 치우친 고가의 부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렴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는 부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한옥 정체성을 구현하는 한옥 구성요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 1 이강민, 이종민, 옥채원, “2007-2010년 한옥 인허가 현황 및 동향 분석”, 한옥정책브리프 제22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